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플러스

통일교의 정체성과 문제점

신앙의 유산

‘정직, 근면, 성실’로.. - 김석태 은퇴장로

청년마당

2026 연합동계수련회 - 한용수 청년



PASSION
영은, 열정을 더하다
2026 BASIC+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곳이
꽁꽁 얼어붙은 땅이어도
메말라 척박한 곳이어도
뚫기 힘든 벽이 있어도
희망의 작은 씨앗 하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 4:8-9)

글·사진 | 서현이 기자



청년부 동계수련회 딸기농장 체험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4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2월 1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옥

윤정림 이숙경A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A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YE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그림이있는 풍경** |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 열정을 더하다, 자신감 이승구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흐르다 송자영 집사

10 **동행 플러스** |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넘보는 통일교 조민음 목사

12 **구역 식탁** | 서원 기도로 얻은 신앙 안영자 은퇴권사

14 **신앙의 유산** | ‘정직, 근면, 성실’로 지켜온 신앙생활 김석태 은퇴장로

17 **소식&나눔** | 2026년, 새해 첫 예배 “영은, 열정을 더하다” 김명희 기자

| 교육부 교역자 부임

진윤규 목사, 한수민·전성수·임현창 전도사

|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뜻을 세운 아이들” 주시은, 이유준

| 남산교회협의회 김재원 집사

| 여전도회협의회 김정숙D 권사

24 **청년마당** | 2026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 “전심” 한용수 청년

26 **선교현장 속으로** | 동티모르 선교 박성원 & 신은경 선교사

28 **슬기로운 교회생활** | 교회 언어바로 잡기 최광주 목사

29 **생활노트** | 국민건강보험 상담[2] 나필균 원로장로

32 **뒷표지** | 2026년 종교개혁 그랜드 투어 안내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열정을 더하다, 자신감 [빌 4:13]

글_ 이승구 담임목사



바울의 열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뜨거운 감정’으로서의 열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떤 상황도 돌파하는 ‘거룩한 내구력’으로서의 열정입니다.

1) 바울의 열정은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2)

사람들의 열정은 대체로 환경이 좋으면 타오르고, 감옥과 같은 고난이 오면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의 결핍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고, 과거의 성공이나 배경이 바울의 간절함을 무디게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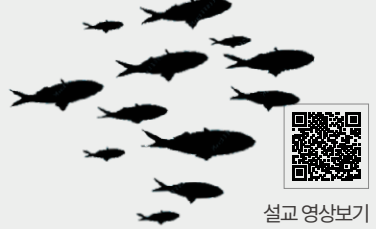
그에게 열정이란 단순히 무엇을 성취하는 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는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었습니다.

2) 바울의 열정은 의존적 열정이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 4:13)”

‘능력 주시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안에’와 ‘폭발적인 힘’의 합성어로 “힘을 안으로 주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3) 바울의 열정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멧집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할 수 있느니라’로 번역된 단어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힘에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버터내는 힘’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거세도 ‘영적 버팀목’이 견고하여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열정’은 신나는 에너지로 생각하지만, 영어 단어 ‘패션(Passion)’의 라틴어 어원 ‘파시오(Passio)’는 ‘고난(Suffering)’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맞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사명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돌파하고 견뎌내는 ‘거룩한 멧집’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은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존재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치려면 물이라는 환경이 있어야 하듯 바울의 열정도 ‘그리스도라는 영적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명력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열정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철저한 의존적 열정이었습니다.

참된 자신감, 주신감(主信感)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자기(自)를 믿는(信) 마음(感)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신감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主)을 믿는 마음, 즉 주신감(主信感)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의존적 열정이,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맺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주신감(主信感)’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무능한 의존자가 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 없이도 살 만하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이 척척 해결되고,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능력과 경험을 신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듯한 때, 그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시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능한 의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나는 주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는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주신감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15:5)

우리는 보통 약함을 감추어야 할 결핍이나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내 실력이 바닥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약함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으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한다”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로 나아갔습니다. 약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주님 없이도 혼자 척척 잘해 내는 ‘유능한 신앙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무능한 의존자’가 되십시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

2)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주신감의 핵심은 상황을 장악하는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장악당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서신서를 쓰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 자아, 내 능력'에서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진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바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분의 뜻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내가 거하는 영적 주소지가 어디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은 감옥을 견디는 인내심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

다. 이렇게 답합니다. "내 처지는 위태로울지라도 내 주소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접속되어 평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 '주신감'이 생기고 비로소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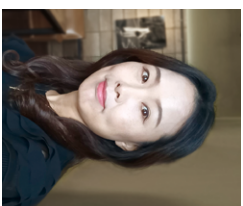
주신감에서 나오는 열정

"나는 강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붙드시시오.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고백은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신앙의 위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신감(主信感)입니다.

'자기(自)를 믿는(信) 마음(感)'이 아닌 '주님(主)을 믿는 마음', 즉 '주신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새로운 열정이 되고, 이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흐르다



송지영 집사
(전도폭발 훈련자)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하나뿐이던 시절, 제게 교회는 친구들을 만나고 놀기 위해 모이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깊이 알기 전부터 교회는 편안한 공동체로 기억됩니다. 성인이 된 후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제 안에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깊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며 제 신앙을 다시 불붙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아니, 아여빠게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 이후 제 안에는 “이제는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도폭발은 유치부에서 함께 봉사하던 집사님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의 몫 같았고, 평신도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무거워졌고, 결국 ‘나는 못 한다’라는 결론에 자궁 당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폭발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신도도 비신자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전도폭발은 말이 막혀 머뭇거리던 사람에게 복음을 정리해 주고, 한 걸음을 떼도록 돕는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전도를 못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정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같은 감정의 말은 쉽게 나오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와도 “다음에...” 하며 물러서곤 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의 흐름을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복음이 제 안에 메시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제 마음에 정리되어 있을 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제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환자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뢰가 쌓일 때, 누군가가 ‘부담’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훈련을 경험한 뒤에는 부모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만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느끼던 안타까움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전도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거절은 아프고, 저 역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폭발 공동체 안에서 얻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가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그 관계 덕분에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가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이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큰 사고로 병원에 계시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께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폭발은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이 열어지고,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제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자리에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넘보는 통일교



조민음 목사
(바른미디어 대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하 통일교)과 국내외 정치권의 유착 의혹, 일본 내 해산 명령 청구 사태 등은 현대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단순한 교리 논쟁이나 일탈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종교의 외피를 쓴 거대 집단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시작과 분열

통일교는 문선명(2012년 사망)에 의해 창설되었다. 문선명은 1935년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체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1940년대 중반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들어가 6개월간 몸담은 뒤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 협회를 창설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60~70년대를 거치며 통일교는 일본과 미국으로 진출해 종교 단체를 넘어 다국적 기업형 조직

으로 진화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세 확장은 통일교 재정의 핵심 출처가 되었다. 이들은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언론, 교육, 건설 등 전방위적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문선명 사후 반대한 자산과 종교적 권위의 승계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

통일교는 현재 아내 한학자가 이끄는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3남 문현진의 ‘글로벌피스재단’, 7남 문형진의 ‘생추어리교회’ 등으로 분열되어 정통성 논쟁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한학자 부부와 통일교 본부 천정궁

이단적 교리와 반사회적 행태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을 구속하는 사역에 실패했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문선명이 한국에 재림 그리스도로 왔다고 주장한다.

문선명과 그의 아내 한학자를 ‘참부모’라고 지칭하고 참부모 아래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을 꿈꾼다.

이를 위해 사탄의 피로 더러워진 인간이 참부모가 짝지은 사람을 만나 결혼 축복을 받음으로 혈통 전환, 즉 깨끗한 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은 합동 결혼식을 진행한다. 합동결혼식은 문선명 아래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통일교의 구원 의식인 셈이다.

합동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는 비용으로 수백 혹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헌금을 내야 한다. 통일교는 이외에도 조상의 원한이나 죄업을 풀지 않으면 후손에게 불행(병, 사고 등)이 닥친다는 공포 마케팅을 앞세운 조상 해원식(解冤式)¹⁾ 헌금, 도장, 도자기 같은 물품에 영력이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영감상법(靈感商法)²⁾ 등으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특히 일본 내 피해와 종교 2세 문제의 심각성은 2022년 7월 8일에 벌어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통일교에 전 재산을 헌납한 어머니로 인해 무너진 가정의 2세가 범인이라는 점은 통일교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세대 간에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내에서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 집계된 영감상법 피해 사례는 3만 건 이상이고 피해액은 약 1조 2,670억이다.

왜 국가 권력에 접근하는가?

통일교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접근을 시도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공신력을 확보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유력 정치인들과의 유대 관계를 과시해 대외적으로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고, 신도들에게는 조직의 위상을 증명해 결속력을 다진다.

이는 사회적·사법적 비판이 제기될 때 정치적 영향력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둘째, 국가 기반 사업을 매개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통일교는 ‘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치인과 정부 관계 부처를 동업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사업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자본 유입의 명분을 확보하고, 국가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통일교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다. 경제·정치적 패권 장악에 목적을 둔 조직이다. 교리적 이단을 넘어 반사회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이비 종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통일교가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 및 감시하고, 이들의 경제적 수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행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통일교가 생산하는 허구적 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기르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해원식: 원통한 마음을 푸는 의식.

2) 영감상법: 물건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 또는 조상이 큰 탈이나 재앙을 맞을 거라 믿게 하여 물건을 파는 행위.

서원 기도로 얻은 신앙



안영자 은퇴권사
(201구역)

안영자 은퇴권사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많이 아팠는데, 이사를 하면 몸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충화면 오덕리라는 산골 오지로 이사했다. 미신을 믿은 가족들의 결정으로 이사했던 그곳에서 권사님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권사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으셨고, 권사님은 교회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레 예수를 믿게 됐다.

저를 고쳐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성장기를 보낸 권사님은 1969년 가족 모두와 서울로 올라왔다. 상경한 그해부터 권사님은 영은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다가 권사님은 1973년에 결혼해서 군인 남편(김승만 집사)을 따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 시절 그곳의 모든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버스를 기다리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다.

1978년에 남편이 인제군 기린면 현리로 전출하면서 권사님은 까닭 모를 병으로 오래 아팠다.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는 권사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용기를 잃으라고 권하셨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다.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등 용한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등 떠도는 얘기에 남편 집사님은 예수 믿는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사님은 예수님께 서원하기로 했다. “저를 고쳐 주시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새벽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새벽기도를 사명이라 생각했다. 1982년 남편이 또 다른 곳으로 전출했을 때 권사님은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남편과 따로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영은 교회로 와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다.

모든 일을 열심히 했다

시골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봉사를 했었는데 영은 교회에 오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봉사도 안 하고 쉬어도 되겠다고 마음 편히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故)이은혜 전도사님이 심방 오셨을 때 전도사님이 권유하신 덕분에 권찰을 시작으로 구역장을 맡았다. “아, 내 병이 낫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무엇이든 해야지!” 이미 예수님한테 붙들린 몸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기로 했다. 이후 사론찬양대, 새가족부, 혼례부, 예배부 안내를 거쳐 권사로 은퇴했다(2007년에 권사 임직).

그 당시 새가족부를 제외한 부서들이 처음으로 생겨서 생소했으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했기에 순조롭게 해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모든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권사님은 칠십 평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교회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아들(김정수 집사)과 며느리(이진 집사)는 교육부에서 봉사하고 있고, 세 명의 손녀(라은, 라엘, 라울)는 각각의 찬양대

에서 찬양한다. 영은교회에서 4대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성경 4독이 목표다

영은교회는 초기에 비해 많이 발전했는데 원래부터 바탕이 좋았다고 한다. 사랑이 많고 또한 위계질서가 있어서 참 좋은 교회다. 어른들은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후배들은 어른을 공경한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은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영은교회가 이런 면모를 꼭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권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이다. 찬송은 301장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권사님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다.

그 소망을 놓고 오늘도 기도드린다. 1년에 성경 4독을 목표로 삼은 권사님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권사님은 지난 2025년 4독을 읽는 데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그 도전을 이어간다. 앞으로도 매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정직, 근면, 성실’로 지켜온 신앙생활



김석태 은퇴장로

모태신앙으로 시작하다

김석태 은퇴장로님은 충청남도 청양읍 교월리에서 1943년 7월에 부친 김희준과 모친 노장순의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받은 장로님은 권사였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신앙인이었다.

장로님이 6살 때 다니던 청양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인들 앞에서 암송해서 교회 장로님들께 책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은 가방이 아닌 책보에 책을 싸서 학교에 다닐 때였다. 가난한 시절 선물로 받은 책가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장로님은 공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1906년 미국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1883-1962)가 세운 영명고등학교는 120년 전통의 기독교 학교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인 조병옥 박사(1894-1960)와 유관순(1902-1920)이 다녔던 유서 깊은 학교다. 고등학교 시절, 가난했던 장로님은 청양읍에서 공주까지 매일 통학할 수 없었다. 마침 영명고등학교 교목이던 서명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사택에 거주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장로님은 목사님 집에서 물 길는 일을 도우며 공부했다. 동창 중 목사와 장로가 20명이다. 이 중 8명은 지금도 서울에서 함께 예배드린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장로님은 군에 입대했다. 훈련소에서 육군 부관학교에 입소해 두 달 동안 부관 교육을 받았다. 이후 육군단 자동차부대에 배치됐다. 이것은 뒷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난한 시골 청년에게는 오직 든든한 하나님만 있었다. 장로님은 주님의 은혜로 어렵지 않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장로님은 포천 군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영명고등학교, 현재 모습



있는 송우리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교회학교에서 초등부 교사로 3년 동안 봉사했다. 장로님은 교회에 혼자 가지 않았다. 늘 20여 명의 장병을 데리고 갔다.

‘죽자사자’ 믿음생활하다

1967년에 제대한 장로님은 3년 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왔다. 영은교회 근처에서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그해 1월에 영은교회에 등록했다. 당시 장로님이 다녔던 충남 서산교회 최명환 목사님이 영은교회 김순성 장로님께 드리라며 추천서를 써줬다. 추천서를 읽은 김순성 장로님은 김석태 청년을 즉시 초등부 교사로 임명했다. 1979년에 소년부가 생기며 장로님은 서리집사로서 소년부 초대 부장이 됐다. 동시에 에바다 찬양대의 대장도 맡았다.

‘죽자사자’ 믿음생활을 했다.

성실히 쌓아온 신앙과 헌신으로 김석태 장로님은 1990년 4월 22일에 집사안수를 받았고, 2003년 4월 27일에 장로로 장립됐다. 그해 장로님은 음영부 부장직과 제17회 영성합창제의 회장직을 맡았다. 당시 교회는 매년

전교인을 대상으로 영성합창제를 개최하곤 했는데, 2003년에 17번째 영성합창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대형 공연장이 필요했다. 마침 도림교회에 서 본당을 사용토록 배려하여 영성합창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공연 수입 5백만 원을 도림교회 유익웅 원로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던 실로암 안과에 기증했다.

장로님이 소년부 부장이었을 때 일이다. 경기도가 평균 북면 목동초등학교에서 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종일 비가 와서 학생들 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들이 애를 먹었다. 비는 오후 내내 그칠 줄 몰랐다.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야 하는데 모두가 걱정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김석태 장로, 장로장립식 (오른쪽 두 번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 시간에 몰아치던 비가 그쳤다. 모두가 감사 기도를 드렸고 캠프파이어를 은혜중에 마칠 수 있었다.

이용남 목사님(제4대 담임목사)은 벤엘성서대학을 2년 과정으로 운영했는데 장로님은 3기 졸업생으로 사각모를 썼다. “죽어도 결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2년 동안 참석해야 합니다.” 엄격한 수칙으로 진행됐음에도 기수별로 50~80명이 참석했다. 말씀이 꿀맛 같았다.

2004년에 허남기 목사님(제5대 담임목사)과 함께 했던 원주 연세대 캠퍼스 전교인 수련회도 잊을 수 없다. 버스 23대와 자가용이 동원되어 800여 명의 교인이 일렬로 차량 행렬을 지으며 원주로 향했다.

시간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은혜와 감동이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했고, 가정별로 숙소를 정해주었으며, 때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전교인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수련회였다.

교회를 자랑하다

27세에 영은교회에 와서 56년 동안 영은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김석태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랑한다.

“첫째,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는 다른 교회에 비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둘째, 청년부가 담당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부흥은 교회의 자랑입니다.

셋째, 우리 교회에는 유스비전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청년들을 위해 이런 멋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장로님의 생활신조는 ‘정직, 근면, 성실’이다. 이 세 가지 신조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로님은 8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로서 근면하고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장로님의 올곧은 신앙은 어머니의 기도에서 왔다. 권사이자 전도사였던 어머니는 평생 심방과 기도로 교회를 섬겼다. 어머니는 93세를 일기로 저녁에 목사님과 예배드리며 찬송하다 잠이 드셨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장로님은 엄명화 권사와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엄 권사님과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살아온 영은의 56년이 꿈 같은 세월이었다고 회고한다.



2026년, 새해 첫 예배 “영은, 열정을 더하다 (Passion)”

1월 1일 0시, 영은의 성도들은 2026년을 시작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렸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본당과 비전홀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의 온기로 가득 찼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띠 해로 ‘희망과 열정’의 해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영은, 열정을 더하다(Passion)”이다. 이승구 목사님은 새해 첫 예배에서 “영은, 열정을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정의 세 가지 본질에 관해 소개했다.

열정의 첫 번째 본질은 ‘부지런함’이다.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꾸준한 열정을 원하신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매일의 작은 헌신이 ‘열심’을

키운다. 바울처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꾸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열정이 자기중심적이면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 중심이면 지치지 않는다. 이때 봉사, 기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

이승구 목사님은 본문의 ‘열정’은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專心)’을 의미하며, 지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목사님은 올 한해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새해 첫 예배에는 성찬식과 말씀카드 전달식이 있었다. 교인들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며 새해를 위한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 각자 뽑은 말씀 카드를 읽으며 한 해에 대한 소망의 열정을 품기도 했다.

교육부 교역자 부임

진윤규 목사
(청년 1부)



한수민 전도사
(소년부)



청년 1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한 진윤규 목사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곳 영은교회에서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섬기며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하며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 그 따뜻한 기억들이 사임 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배우며 성장했던 영은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온 영은교회에서 청년 사역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여 설렘과 동시에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은 영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에서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씀과 “2026년 영은 소년부, 열정을 더하다”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소년부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초등 5,6학년 시기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열정을 더하는 생활’입니다. 교사가 먼저 말씀의 본이 되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QT를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예배가 한 주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겠습니다.

전성수 전도사
(중등부)



저는 작년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남편(김회창) 전도사와 함께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견습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은교회는 제게 오래전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대학 시절, 고등부 찬양 간사를 섬기던 선배의 권유로 수련회 찬양팀으로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들의 헌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남편 전도사가 초등부에서 사역하면서 제 기억 속에 친근하고 감사한 교회로 남았습니다.

부임 이후 어린이들부터 학생들, 그리고 많은 성도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큰 위로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등부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헌신적인 교사분들을 만나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창 전도사
(유치부)



포근하고 열정이 충만한 영은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복막염과 장폐색증으로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온 가족과 교회가 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와 가정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은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제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뜻을 세운 아이들”

1월 17, 18일(토,주일) 이틀 동안 유년부는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성경학교 전부터 설레고 기다려져서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환영 속에 찬양과 함께 예배로 겨울성경학교를 시작했다.

성경학교는 6개 조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나는 다른 반 친구들, 선생님과 같은 조가 됐다.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판 뒤집기 게임이었다. ‘두근두근’ 우리 조가 승리하길 바라며 열심히 판을 뒤집은 결과!! 두 번이나 이겨서 너무 기뻐다. 점심으로는 자장면을 먹었는데 선생님,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며 맛있게 먹었다. 선택학습과 공과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 배웠다.

뜻을 세우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주시은 (유년부 2학년)

김찬영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 시요~!”라고 말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 함께하신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교회 밖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겁이 날 때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전도사님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십자가에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스도인답게 ‘뜻을 세우는 아이’가 되기 위해 성경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야겠다.

이번 성경학교는 재미있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열심히 참여한 결과 1등 상품도 받을 수 있었던 기쁜 시간이었다. 이처럼 즐거운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고 싶어요



이유준 (유년부 2학년)

유년부 겨울성경학교에 다녀왔다.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뜻을 세운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뜻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첫째 날(17일) 예배를 드리며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후 초성 퀴즈, 유년부 선생님 이름 빙고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친구들과 많이 웃으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심으로 자장면을 먹었는데 함께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식사 후 공과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래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을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친구들과에게 더 친절하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센터학습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했다. 주사위를 던져서 돌기도 하고, 판을 뒤집는 게임도 했다. 주어진 단어를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임과 사탕을 모으는 게임도 했다. 게임을 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친구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공과에서는 “예수님처럼 자라 갈래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다. 예수님처럼 기도, 지혜도, 사랑도 자라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둘째 날(18일)에는 예배를 드리며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만의 일기를 쓰면서는 성경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처럼 자라고 싶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착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고 싶다.



김재원, 연상훈, 김덕원, 김석진 (왼쪽부터)

2026년 남선교회협의회 임원

회장: 김석진 장로(2남)
총무: 김덕원 안수집사(3남)
서기: 연상훈 안수집사(4남)
회계: 김재원 집사(5남)

영은, 열정을 더하다: 세대를 잇고 마음을 모아 함께 걷는 남선교회협의회



김재원 집사
(남선교회협의회 회계)

영은교회 남선교회협의회는 교회 안에서 남성 성도들이 세대별로 모여,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각 남선교회는 연령 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배와 교제, 봉사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남선교회협의회는 한진구 목사의 지도하에 자문위원과 회장, 총무, 서기, 회계 등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원진은 협의회 사역의 전반을 조율하며, 각 남선교회가 연합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남선교회부터 8남선교회까지 각 선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세대별 삶의 자리와 상황에 맞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선교회협의회는 특정한 역할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교회의 주요 예배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연합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남녀선교회 가입 주일과 연합 예배, 남선교회 헌신예배와 남선교회주일을 비롯하여, 노회 및 전국 단위의 연합 사역에도 함께하며 교회의 사역에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와 야외 예배, 체육대회, 교회 대청소, 미자립교회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제와 섬김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선교회 활동이 낯설거나, 참여에 부담을 느끼시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남선교회는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먼저 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관심이 생길 때, 마음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며, 그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믿음을 나누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박현숙, 김정숙, 이은숙, 서명희, 구은정, 김세연 (왼쪽부터)

2026년 여전도회협의회 임원

회장: 김정숙D 권사

부회장: 박현숙B 권사

총무: 이은숙D 집사

서기: 구은정 집사

회계: 서명희 집사

부회계: 김세연 집사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은 여전도회협의회



김정숙D 권사
(여전도회협의회 회장)

영은 여전도회협의회는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각 여전도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위원(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이 한 해의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갑니다.

영은 여전도회협의회의 사역은 단순히 행사를 준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중심은 여전도회의 주제 말씀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사43:19)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교 여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며, 국내와 국외 선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여전도회협의회 총회로 문을 엽니다. 새해의 첫걸음부터 “올해도 주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자”라는 다짐으로 모이며, 여전도회 주일과

명절 물품 판매, 섬김이 필요한 곳의 봉사로 이어집니다. 임원단 수련회와 기념예배, 연합 헌신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활절 안내와 교회 창립 주일 봉사, 전국 여전도회 선교바자회 등 연합 사역에도 참여합니다.

여름에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원하며 다음 세대를 섬기고, 가을에는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걸음을 점검합니다. 연말에는 추수감사절 봉사와 협의회 임원개선 총회를 통해 감사와 책임을 나누며, 새해 첫 예배와 성탄절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역을 여전도회원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섬김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큰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

“전심(專心)”(롬12:11)



한용수 (청년부)

1월 4일 주일, 새해의 첫 주일 총 201명의 청년과 교사가 함께 예배드리며, “전심(專心)”을 주제로 한 ‘2026 청년부 연합동계수련회’의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안고 포천 영광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집회

저녁집회가 시작되자 청년들은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찬양 중에 흘러나온 땀과 눈물은 “전심”이라는 주제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집회는 2026년부터 청년 1부를 섬기게 된 진윤규 목사님께서 “온전하다”(역대상 28:7-9, 시편 51:16-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

습니다. 목사님께서 온전함의 시작은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집회도 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 이찬양 목사님께서 “삶으로 전하다”(에스겔 2:1-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제사장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짐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감사와 감격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하며,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

나 ‘예수를 위한 나’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성령님께 간섭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 일치치를 이루는 ‘열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묵상과 교제

말씀 시간 외에도 청년들은 매일 아침 QT로 하루를 열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진윤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진솔한 대화’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청년부를 섬겨주실 진윤규 목사님의 다짐과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과 청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지난 5년간 영은교회의 표어였던 ‘영은 BASIC’을 위해 제작한 ‘BASIC 프로젝트’ 주제곡 다섯 곡과 올해 표어 ‘PASSION’의 주제곡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을 모아 청년들이 직접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곡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청년 1,2부 연합동계수련회를 통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깨어짐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에 당연히 ‘전심’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티모르 선교: 흘러온 은혜, 이어갈 걸음

박성원 & 신은경 선교사

2025년은 동티모르가 독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배했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선언 후 불과 9일 만에 인도네시아의 점령을 받았고, 그 이후 24년 동안 다시 혹독한 지배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상처와 아픔 위에 다시 일어난 동티모르가 언젠가 이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따우루 섬 아이들과 함께한 4년

4년 동안 이어져 오던 아따우루 섬 유치원 영양 급식 지원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이카(KOICA)의 지원으로 아따우루 섬 20개 유치원, 약 600명의 어린이에게 영양 급식을 제공하며 조리실 건축,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까지 함께 진행할 수

했습니다. 아이들 각 가정에 다섯 가지 채소 씨앗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유치원에서의 영양 지원은 끝났지만, 이제는 가정의 작은 밭에서 채소를 길러 아이들에게 먹이며 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으로 여는 문, 에르메라의 아홉 번째 어린이 도서관

저희는 2021년부터 동티모르 어린이들이 모국어인 테툼어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에르메라 공공 도서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약 10년 전 호주의 지원으로 세워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이 많이 낡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동안 모든 봉사자가 한마음으로 매달려 약 2,000권의 동화책을 테툼어 책으로 ‘다시 태어나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매일 마시던 우유 한 잔이 이 섬마을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택을

마침내 2025년 12월 16일, 에르메라의 아홉 번째 어린이 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 그리고 한국에 파견 노동자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이 도서관에서 다시 태어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어로 된 책들도 기증받아 테툼어로 번역하여 ‘영어-테툼어’ 책도 도서관에 비치하려 합니다.

북 페스티벌「꽃」- 배움이 현장이 되다

12월 5일에는 사나나 구스마오 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준비해 온 수업과 활동들을 실제 현장에서 나누는 자리로,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수료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약 300명의 어린이를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의 행사는 책 재활용 활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지거나 파본 처리된 책들을 활용해 행사용 책을 직접 만들어 보며,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독서지도사 세미나 - 사람을 세우는 시간

2025년 한 해 동안 어린이 독서지도사 양성 세미나를 총 다섯 차례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12월 마지막 세미나에는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관계자께서 일주일 동안 직접 방문해 주셔서 교육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도서관 여섯 곳이 참여했습니다. 독서지도사 양성을 목표로 계획했던 3년의 여정이 올해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 사역이 한 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한 장소에서만 페스티벌을 열고 마쳤는데, 이번에는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각자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직접 보고 배운 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도 함께 손을 보태며 점점 성장해 가는 독서지도사들을 격려했고, 그렇게 세 번째 해를 맞이한 북 페스티벌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회 언어 바로 잡기

2026년 “영은, 열정을 더하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달려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은 입춘이 있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영은 공동체 안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광주 목사

성서(X) → 성경(O)

경(經)은 글, 법, 경서 등의 뜻을 담고 있으며, 서(書)는 글, 책, 글씨 등의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또한 서(書)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모든 책을 포함해서 쓰는데 비해, 경(經)은 주로 경전의 의미로 국한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서(聖書)’라는 말을 고쳐서 ‘성경(聖經)’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읍기서, 잠언서(X) → 읍기, 잠언(O)

이미 글임을 나타내는 기(記), 서(書), 언(言), 편(篇), 가(歌), 전(傳), 록(錄) 등이 붙은 성경, 즉 읍기, 로마서, 잠언, 시편, 아가,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등에는 다시 ‘서(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X) →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O)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령축제, 부활절축제, 성탄축제 (X) → 성령 잔치, 부활절 절기 행사, 성탄 축하 행사 (O)

‘축제(祝祭)’란 말은 192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였는데, 떠돌고 소리 지르면서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치 영어의 ‘페스티벌(Festival)’과 같다고 생각하여 이를 ‘축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의미와 세속적인 의미가 담긴 ‘축제’라는 말을 교회의 여러 행사에 사용하기보다는 ‘잔치, 절기 행사, 축하 행사’ 등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상담 [2]



나필균 원로장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환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형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인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양에 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까지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나타날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2) 노인 장기요양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 장기화로 인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핵가족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던 노인부양에 관한 책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변화되면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등 가족관과 사회의 변화로 사각지대에 놓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

장기요양급여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

양 인정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동시에 배제된 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정원 기준으로 10명 이상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5~9명인 경우에는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합니다.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되나, 현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받는 현금급여인 가족 비용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 이용 절차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인정결과통지 → 급여이용

1)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인정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인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인정 조사 후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서, 신청서, 의사 소견 등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6개월 이상 기간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노인 등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 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5) **인정결과통지**: 공단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 통보를 발송합니다.


6) **급여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개별적인 기능 상태 등이 반영된 급여 이용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기능 상태, 희망 급여 등의 변화 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급여 이용 계획 등 재작성을 요청하

여 재발급이 가능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 기관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 이용신청 승인 후 급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제도.**


교회에서 편안하게
상담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상담

나필균 원로장로
(국민건강보험공단 10개 지역 지사장 역임)

-시간: 매 주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교회 2층 의료실

무료상담 /
**예약없이 순서대로
상담진행**



2026년 종교개혁 그랜드투어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숨결을 찾아서

- 주관 영은교회 교육문화부
- 여행기간 7.20~7.31 (10박12일)
- 여행대상 전교인
- 여행경비 1인 435만원
(불포함: 항공료, 가이드비 100유로)
- 모집기간 2월 28일까지(선착순 마감)
- 동행 박대원 목사
- 문의/신청 김명희 권사 (010-9166-6809)
- 순례도시 3국 14도시(독일, 스위스, 프랑스)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 목사 | 허남기
- 담임 목사 | 이승구
- 부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 협동 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일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일장인예배	오전 11:40	7층 천교1실
모임	젊은세대 더너움	
시간	젊은부부 돌이서	
안내	젊은부부 품안에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5개월~3세	1층 영아부실
유아부	4~5세	2층 유아부실
유치부	6~7세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초등 1~2년	5층 유년부실
초등부	초등 3~4년	5층 초등부실
소년부	초등 5~6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부예배자 자녀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